

굴곡

박종분

“여자들은 심장 박동이 뛰는 그 순간부터 두 개의 굴곡을 갖고 태어나는 거여. 여자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마지막 생이 끝날 때까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엄마가 말씀하셨던 희미한 목소리가 여명처럼 내 귓바퀴를 두드리고 있다.

전광판 위로 번지는 ‘수술 중’이라는 글씨는 벌써 다섯 시간째 빛의 농도를 더하고 있다. 서성거리는 발걸음 위로 자꾸만 눈물이 방울져 내려 발등을 적신다. 그리고 엄마 젖을 물고 웅얼이 하던 시간들이 넘어올 것처럼, 자꾸만 헛구역질이 난다.

엄마는 알고 있을까?

‘오늘 엄마의 한쪽 굴곡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엄마 나이 삼십에 호박 덩굴손에 주렁주렁 매달린 호박처럼 일곱 남매를 남기고 갑자기 돌아 가셨다. 불행의 굴곡이 시작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잣집의 무남독려 외동딸이었던 엄마는, 우리를 향해 씬 없이 밀려오는 거센 파도에 휩쓸리며 강인한 여자가 되었다.

어릴 적, 엄마의 몸에서는 항상 비릿한 바다향이 났다. 엄마는 새벽의 그림자에 발걸음을 새기며, 새벽 수산시장에서 비릿한 바다를 팔았다. 생선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걸러내며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이들 육성회비와 오늘 아침 바닥을 흰하게 드러낸 쌀독 향아리, 그리고 고무신을 꿸고 나온 막내딸의 발가락?

엄마의 굴곡에는 칼날의 상처들로 얼룩진 도마처럼, 상처들이 차곡차곡 밀물처럼 새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의 인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도 여자가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엄마를 뵈러갈 기회가 많지 않았다. 어쩌면 내 삶이 우선이다 보니 단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내 스스로 엄마를 멀리 했는지도 모른다.

늦은 저녁 무렵,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은비 에미니? 송 서방하고 아이들 잘있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심리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카롱카롱하다 하여 호랑이 할미라고 하는

데, 엄마의 힘없는 목소리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좀 무리해서 그럴것재. 가슴이 아파 파스 붙였쓰게 관찰을기다. . 날랑 신경 쓰지 말고 니나 건강 조심해라. 니 환절기만 되면 천식 때문에 고생하재. 그래서 배에다 도라지, 더덕, 꿀 넣어 달여 줘내서 보냈다. 꼭 챙겨 먹고, 송 서방 하고 니 좋아하는 갈치랑 오징어, 그리고 은비 좋아하는 꽃게 튼실한 놈으로 몇 마리 보냈쓰게 맛있게 먹그라.”

“아이참 엄마도, 매일 시장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니까 그럴지.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일 좀 그만하고 좀 쉬세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엄마 많이 아픈 건 아니지?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보든가. 매일 파스만 부치지 말고. 그리고 생선은 지난번에 보내준 것도 아직 냉장고에 남아 있는데 무엇 하러 또 보내. 팔기나 하지.”

그 때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봤어야 했는데. 내 엄마는 언제나 강인한 사람이니까 많이 아프실 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엄마는 칠남매를 키우면서, 엄마의 굴곡이 칠남매의 상처들로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에게 나는 엄마에게 수없이 듣던 말들을 쏟아 냈다. 그런데 학교 간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운동장 놀이기구에서 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연락이 왔다. 급히 학교에 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기부스를 하고 울다 지친 아이를 업고 집으로 오는데, 아이가 잠결에 손을 뻗어 내 젖가슴을 더듬는다. 대신 아파 주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저려 눈물이 핑 돌았다. 어릴 적 나도, 지금 내 등에 업힌 딸의 나이 때도 엄마한테 수없이 업어 달라고 떼를 썼다. 엄마는 장사에 지쳐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도 내 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란 막내딸이 가여우셨던 것이다. 나는 엄마 등에 업혀서,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가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엄마가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며,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며 잠이 들곤 했다. 지금 생각해도 엄마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하며, 행복했던 것 같다.

딸을 업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큰 언니였다. 큰 언니는 우느라 말을 잊지 못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언니 답답해 죽겠네. 울지만 말고 말해봐”

“엄마가 쓰러지셨대.”

얼마 전, 엄마의 힘없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엄마는 산소마스크에 의지해 숨을 쉬고 계셨고, 의식이 거의 없었다. 희미하던 비릿한 바다향이 내 몸에 스며들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담당의사가 보호자를 불렀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에 비춘 CT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렇게 되도록 보호자들은 모르셨나요? 혹은, 환자분께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셨나요? 여기 보이는 덩어리들이 암세포인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퍼져있어요. 이럴 경우 항암 치료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당장 다른 곳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 한 쪽 유방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환자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든 이후, 처음으로 엄마의 가슴을 보았다. 어릴 때 엄마의 굴곡진 가슴은 언제나 우리 칠남매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는데,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보이는 굴곡은 세월의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를 키우면서 그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청춘을 버리고, 이제는 여자로서의 자존심마저 버려야 한다. 엄마의 인생을 우리 칠남매가 빼앗았다. 지금 이 순간 엄마의 인생이 밀물로 우리를 보듬고 쓸물이 되어 빠져 나가야 한다.

여자는 자궁에 잉태된 순간부터 운명처럼 두 개의 굴곡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굴곡의 샘을 먹으며 자라 처녀가 되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아이의 엄마가 된다. 그리고 여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 슬한 시간들을 엄마로서, 자기의 생을 태운다. 그러면서 그 굴곡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 희생의 시간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나도 언젠가 엄마처럼 이런 순간이 올지 모른다. 여자의 텅 빈 시간을 붙잡고 울부짖을 그런 날이. 하지만 나는 엄마처럼,

‘너희들을 키운 값진 선물이기에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아직도 나는 엄마 같은 그 커다란 사랑을 내 자식에게 줄 자신이 없다.

전광판에 불이 꺼지고 엄마가 실려 나온다. 녹색 수술복을 입은 엄마의 가슴 한쪽이 푹 파인 굴곡이 보인다. 그리고 훗한 자리에 자꾸만 시린 바람만 찾아 든다.

굴곡이 사라진 한쪽 자리. 우두커니 병원 복도에 서 있는 내 몸에서 자꾸만 비릿한 파도가 빠져 나가려 한다. 나는 유년 시절의 추억을 헛구역질로 계속 토해내고 있다.